

# 정치의 근대적개혁을 주장한 유길준의 사상과 그 제한성

지 일 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철학사에서 근대부르조아계몽사상에 대하여서도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5권 242페이지)

유길준(호는 무당, 1858—1914)은 19세기말~20세기초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주장하여나선 우리 나라 부르조아계몽사상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우리 나라의 초기 부르조아계몽사상의 선구자였던 박규수(호는 환재, 1807—1876)와 접촉하면서 그로부터 당시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근대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적영향을 많이 받았다.

뒤이어 여러 나라들을 류학하면서 근대적발전이 세계적추세이며 우리 나라가 이에 따라서지 못함을 인식하고 나라의 근대적개혁에 대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후 그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인물들과 함께 부르조아개혁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이 과정에 일련의 부르조아개혁사상을 제기하였다.

유길준이 제기한 부르조아개혁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정치를 근대적으로 개혁할데 대한 사상이다.

정치는 일정한 계급이나 계층, 사회적집단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봉건적절대군주제가 매우 강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정치의 근대화를 실현함이 없는 사회의 다른 분야의 근대적개혁도 매우 어려운것으로 되었다.

유길준은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정치를 근대적으로 개혁할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정치를 근대화할데 대한 유길준의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부르조아적자유와 평등을 실현할데 대한 사상이다.

부르조아적자유를 실현할데 대한 유길준의 사상은 자유를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그 실현을 주장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는 자유의 본질에 대하여 《자유란 자기마음이 좋아하는바를 쫓아서 일을 행하는것이니 … 그 어떤 다른것으로부터 조그마한 구속을 받지 않으며 굴복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것이다.》라고 하였다.(《서유견문》 111페이지)

이것은 그가 자유를 자기가 좋아하는바를 실현하는것으로 리해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유길준의 이 견해는 물론 자기가 좋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리익을 침범하는것도 자유로 된다는것은 아니며 또 순수 개인적인 요구실현이 자유로 된다는것을 인정하는것도 아니었다.

유길준의 자유에 대한 견해는 자기의 요구실현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으며 민족적인 요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것이였다.

유길준은 이러한 자유는 하늘이 인간에게 준 천부적인것으로서 빼앗길수도, 양보할수도 없는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구속하는 봉건적인 신분제도, 문벌제도를 비판하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실현할것을 주장하였다.

부르조아적자유실현에 대한 유길준의 견해는 봉건적절대군주제밑에서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마저 유린당하던 당시의 조건에서 봉건적질곡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객관적으로 일치한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의의를 가지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유길준의 견해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는 자유를 인간의 본성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못하였다.

자유는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인간의 사회적속성인 자주성이 실현된 상태 다시말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실현된 상태이다.

그러나 유길준은 자유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인것으로, 사람이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성질로 이해하였다. 더우기 그는 자유의 계급적성격을 보지 못하였다.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참다운 자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실현될수도 없다.

평등을 실현할데 대한 유길준의 사상은 그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주장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유길준은 《대체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되는 권리는 어질고 어리석으며 귀하고 천하며 가난하고 부유하며 강하고 약한것의 구별이 없으니 이것은 세상의 대공지정한 일이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점유한 지위는 사람이 만든 구별이요, 사람이 되는 리치는 천자로부터 필부(신분이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털끝만한 차이도 원래 없기때문에 ... 사람우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이 없으니 천자도 사람이요, 필부도 역시 사람이니라.》라고 하였다.((서유견문》114페이지)

여기에는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원래 평등하다는 그의 견해가 담겨져 있다.

평등을 실현할데 대한 유길준의 사상은 봉건사회의 신분적등급제도를 부정하고 능력본위로 인재를 등용할데 대하여 주장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는 사, 농, 공, 상의 엄격한 신분등급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사이의 귀천의 차이가 결정되었다.

유길준은 사, 농, 공, 상은 귀천의 차이가 아니라 직업상차이이며 만일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기준을 선정한다면 그것은 학문과 기술이라고 하였다. 즉 학문과 기술에 능통한 사람은 군자이고 학문과 기술이 없는 사람은 소인이라는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불평등한 신분제도와 문벌제도 특히 조정의 지위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현상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평등하기때문에 능력본위로 인재를 등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길준의 평등사상은 당시 사람들을 근대적으로 계몽각성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의 평등사상은 관념론적이며 천부적인 인권설에 기초하고있으며 인신적인 평등에 국한된 제한성을 내포하고있다.

봉건사회말기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과 더불어 력사무대에는 신흥부르조아지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당시 일정한 재부를 축적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천한 신분에 속하여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신흥부르조아지들은 봉건적인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고 그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서 정치에 참가할것을 지향하였다.

유길준의 평등사상은 바로 신흥부르조아지들의 이러한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것이였다.

정치를 근대화할데 대한 유길준의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봉건적군주제를 비판하고 부르조아적립헌군주제를 실시할것을 주장한것이다.

유길준은 우선 봉건적군주제를 비판하

였다.

그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량반세력이 드센 군주국이기때문에 빈부귀천의 차이가 심하고 량반관리들의 횡포가 심하며 일반 백성들은 공정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 다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길준은 《...국가의 법이 일정하지 못하다나니 어진 임금과 선량한 관리가 국가의 정치를 행하고 공도에 힘써도 그 임금과 신하가 살아있을 때 그치고 좋은 법과 정치는 그 임금과 신하의 죽음과 동시에 멸하며 사나운 임금과 간사한 신하가 국권을 잡고 잔혹한 법으로 개인의 뜻을 차리지 않는자가 없는 즉 태평한 때를 당하여도 인민의 기상은 활기가 없고 정부에 대하여 우국하지 않으며 국가가 위급한 상태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정부와 인민사이에 정의가 통하지 않으며 조그마한 일이라도 많지 않으면 정부는 인민을 속박하고 인민은 정부를 원망하며 인민은 정부를 리해하지 못하고 당면한 부세도 응당히 바치려 하지 않으며 이로 하여 씩씩한 기상과 독립하는 정신이 부족하고 국가에 수치가 있어도 인민은 분노하지 않으니 다른 나라에 수치를 당함은 이때문이니라.》라고 하였다.((『서유견문』 150~151페이지)

계속하여 그는 봉건적군주제밑에서는 어진 임금과 신하가 있어도 그 영향력이 제한되고 포악하고 패륜한자가 집권하기마련이며 그들이 나라를 운영하는것을 보면 개인의 편안만을 생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유길준은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치형태를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부르조아적립헌군주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그가 《각 나라의 정치제도를 서로 비교하건대 임금과 백성의 공치(립헌군주제)를 하는것이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이다.》라고 한데서 찾아볼수 있다.(우와 같은 책 151페이지)

그는 립헌군주제를 실시하면 모든 권한이 군주 한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먼저 의정부대신이 제기된 사무를 공평하게 정하며 군주의 명령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의정부대신은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고 자기를 선거해준 인민을 대신하여 사무를 보게 되므로 군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도를 쫓지 않을수 없다고 하였다.

부르조아적립헌군주제를 실시할데 대한 유길준의 사상은 당시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부르조아적립헌군주제를 실시할데 대한 그의 사상은 봉건주의를 철저히 부정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유길준은 봉건왕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봉건왕을 립헌군주제의 운영형식인 의정, 행정, 사법(그는 3권분립을 주장하여 이를 3대강이라고 하였다.) 3대강의 원수라고 하였으며 부르조아공화제에 대하여 어리석은자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비평하였다.

이것은 정치를 근대화할데 대한 그의 사상이 봉건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매우 미숙한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